

2011. 10. 9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KDI-FES 국제컨퍼런스 환경친화적 산업정책으로의 전환과 도전

2011 KDI-FES International Conference
Toward Ecological Industrial Policy:
Transition and Challenges

- 기간: 2011년 11월 9일(수) ~ 10일(목)
- 장소: KDI 별관 2층 대회의실
- 주최: KDI · FES(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)

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세션 1. 제조업 및 에너지 부문의 녹색화

발표 1: 자발적 오염 저감과 규제
네하 카나 미국 빙햄턴 뉴욕주립대 교수

- 정책 수립시 민간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 의지를 고려해야 함.
- 자발적 오염 저감 프로그램은 첫째, 공공프로그램, 둘째, 공공과 민간의 공조, 셋째, 민간프로그램 등으로 나눌 수 있음.

- 공공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일반적이며 33/50, Energy Star, ISO 14001 등이 예
- 공공과 민간의 공조는 유럽에서 일반적이며 전기제품의 효율성 기준이나 멕시코 클린 산업 프로그램 등이 예
- 민간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, 공정무역커피나 환경친화 제품 등 이 예

□ 의무적인 오염 저감 규제 효과는 자발적인 오염 저감 시장의 반응에 영향 받음.

- 소비자들은 소득과 환경의 전체적인 질을 고려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 시장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함.
- 의무적인 오염 저감의 도입으로 환경의 전체적인 질이 높아지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남.
- 환경의 질이 정상재(normal goods)일 경우, 의무적인 오염 저감은 환경의 전체적 수준을 향상시키지만 구축효과 때문에 향상 수준은 의무적인 오염 저감의 양보다 작아짐.

□ 최적 규제수준 분석

- 자발적인 오염 저감 시장에서의 구축효과를 고려해 의무적인 오염 저감 규제의 효과를 분석해야 함.
- 분석된 의무적인 오염 저감 규제 효과를 토대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규제 전략을 수립해야 함.

발 표 2: 녹색 뉴딜정책과 생태적 산업 정책
필립 쉘펠만 독일 부퍼탈연구소 선임연구위원

□ 2009년 OECD 각료 이사 회의에서 채택한 ‘녹색 성장 선언문’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경제 희생 프로그램에 따른 정치적 후속 조치

- 세계 각국의 경제 희생 프로그램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처럼 투자를 통해 경제를 희생시키려고 시도하며 환경 친화적 목적을 위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음.

□ 녹색 뉴딜정책과 생태적 산업정책

- 한국은 경제 희생 프로그램에서 환경 친화적 목적을 위한 투자의 비율이 80.5%로 가장 높음.
- 많은 녹색뉴딜정책이 환경문제를 강조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효율성 측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됨.
-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과 이에 수반되는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생태적 산업정책의 좋은 예를 보여줌.
- 자원효율성(Resource efficiency)은 글로벌 자원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경쟁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중요함.

토 론

코지마 사토시 일본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 경제환경실장

-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소비가 만연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린경제의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의문
- 독일의 점진적 핵발전 포기 정책과 같이 매우 주의 깊은 정책(precautionary policy)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정책평가에 어려움이 있음.